



최고의 목장에 도전하는 2006년 최우수검정회 음성검정회



2006년 유우군 검정보고회
최우수검정회 수상 후
기념 촬영

낙농의 불모지에서 젖소개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검정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개량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가능했을 것이다. 변함없는 신념과 최고의 목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회에서 주최한 2006년 유우군 검정보고회에서 최우수검정회로 선정된 음성검정회를 찾아보았다.

1. 검정회 발족

1997년 유우군 검정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검정회가 발족되는 등 개량사업에 대한 낙농가의 인식이 변하고 있었지만 음성의 낙농가들은 아직도 긴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같은 생활권에 있는

청주검정회, 충주검정회가 본격적인 개량사업에 참여하면서 우수한 검정성적을 내고, 목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 더불어 더 이상 젖소개량을 소홀히 하면 음성지역의 낙농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하게됨과 동시에 2001년 검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3년 3월 정식으로 음성검정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전국 경산우



2006 최우수검정회 시상장면

52.4%가 검정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음성지역 62개 낙농가 중 21농가만이 검정에 참여하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먼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 검정을 받으면서

음성검정회를 발족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은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면서 개량사업에 동참시키는 것과 유능한 검정위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안완석 회장은 밝혔다.

특히 유능한 검정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참여 농가수와 정부보조금의 부족으로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검정위원이 자주 교체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검정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검정회 발족 초기에는 “검정만 받게 되면 목장이 좋아지고, 남들이 하나까 나도 검정을 받는다”라는 생각과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어 검정에 참여하여 회원수가 증가하였으나 그 후 검정에 의미를 모르는 회원들의 번거롭고,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하면서 위

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목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개량이 절대 필요하다는 임원진과 가람목장(대표 신병국) 등의 노력으로 최우수 검정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가축개량을 필요로 하는 정예회원들이 모여 체계적인 목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검정회의 돌풍은 계속될 것이라고 임원진들은 강조했다.

더불어 회원들의 검정성적이 향상되고 목장의 순익의 증가함에 따라 주위의 농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가 늘고 회원들의 긍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3. 검정회의 변화

음성검정회 등록, 심사, 검정성적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혈통비율과 선형심사 점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검정성적 또한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5일 유량을 보면 2002년 9,149kg에서 2005년 9,631kg, 2006년에는 10,020kg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회원들의 노력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1. 305일 검정성적 변화

년 도	305일 검정성적				평균 산 차
	유량(kg)	유지율(%)	단백율(%)	무지율(%)	
2002	9,149	3.84	3.22	8.84	2.5
2003	9,469	4.03	3.17	8.93	2.3
2004	9,730	4.08	3.10	8.69	2.5
2005	9,631	3.93	3.06	8.64	2.3
2006	10,020	9.94	3.06	8.63	2.3

※생산능력은 매우 우수하지만 평균산차가 낮은 것이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등록·심사현황

년 도	305일 검정성적				비 고
	등록두수	혈통비율(%)	심사두수	최종점수	
2002	910	21	11	74.0	신규 등록
2003	170	26	641	74.2	
2004	162	64	219	74.8	
2005	212	58	309	75.5	
2006	99	83	346	75.4	

※2002년 신규 검정사업 참여로 인한 일괄등록이 이루어져 혈통비율이 낮게 나타남

4. 검정회와 함께 하는 사람

음성검정회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최우수 검정회가 되기까지 함께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안완석 회장(음성검정회, 우실목장)



음성검정회의 역사는 짧지만 최우수검정회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협조와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가능했다. 회장의 역할은 회원들의 심부름을 잘하고, 가려운 부분을 찾아서 긁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3년 검정회가 발족할 당시 주위 낙농가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이 목장을 얼마나 하려고 검정을 받느냐”는 핀잔도 들었지만 내일 당장 목장의 문을 닫는 일이 있어도 젖소개량은 필요하다고 설득하여 발족시켰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검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귀찮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말을 하며 많은 회원이 떠났을 때 검정회의 존재여부까지 걱정했는데 2006년 전국 최우수 검정회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회가 새롭고, 가슴 뿌듯한 기쁨을 느낀다. 더불어 검정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생산성 및 소득이 높아 주위농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과 참여를 원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음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

곽한무 회장(충북산유능력검정협의회, 본회감사, 태산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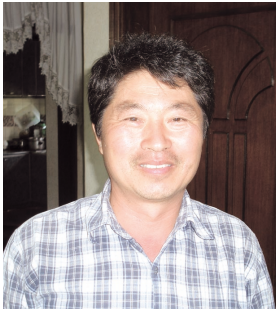
한국낙농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며 1989년부터 검정사업에 참여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홀스타인품

평회에서 그랜드챔피언을 2회에 걸쳐 수상하면서 느낀 점은 낙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충북낙농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젖소를 개량하고 검정회를 발족시키는데 일조해 왔는데 음성검정회가 최우수검정회로 선정되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 오늘에 1등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 충북낙농발전을 위하여 젖소능력개량사업, 조사료생산장비 등의 지원사업을 아끼지 않은 충북도청 곽용화 축산팀장에게 감사 드린다.

황희재 대표(초원목장)

검정회가 발족되면서 한달에 한번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가



제공되어 우리 낙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검정을 통한 젖소의 개량 방향을 단순히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에서 벗어나 경제수명, 생애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즉 우리나라 젖소들의 305일 산유량이 문제가 아니고 장수를 못하는 것이 문제다.

5~7산 이상 갈 수 있는 젖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추지 아래 유방, 지체, 강건성을 중심에 두고 개량해야한다.

신병국 대표(가람목장)



1996년 덴마크 낙농 연수를 다녀온 후 본격적인 개량을 시작하여 2001년 이후 305일 평균산유량이 13,000~14,000kg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경제산차가 낮다는데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수한 수정란을 확보하여 이식하고 있는데 수태율이 낮아 아쉬움이 많다. 덴마크처럼 자기목장에서 채란하여 바로 이식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수태율 향상과 개량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능력이



2006년 305일 유량 최우수목장 수상장면

우수한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성우 관리가 필요하다. 많은 낙농가들이 목장을 방문하여 유량을 많이 생산하는 개체만 보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개량현황과 육성우 등 체계적인 관리현황을 보아야한다

현재 가람목장은 세미TMR사료를 급여하고 있으며, 두당 10,000/두 정도의 생산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쿼터량을 맞추기 위하여 전체 개체 중에 도태순위를 정하여 도태하기 때문에 산차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신대표는 전했다.

곽용화 축산팀장(충북도청)



충북도 축산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일반화와 개방화되고 있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친환경축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농정을 펼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농림부 시책에 따른 가축개량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한우개량을 위한 인공수정료지원 및 수목금 육종개량교육, 돼지의 액상정액 확대공급, 육우의 거세장려금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충북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충북도 홀스타인대회, 한우고급육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축산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젖소산유능력 증대를 위하여 지역검정회 육성은 물론 가축개량을 위하여 매년



2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음성검정회가 최우수 검정회로 선정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되어 흐뭇함을 느낀다.

남원식 바이오 축산담당(음성군청)

음성검정회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개량에 대한 열기로 최우수검정회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 군에서도 빠짐없이 월례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농가들의 의견을 받아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축개량과 경쟁력 있는 목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다소 아쉬움 점은 환경문제와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가들의 의욕이 저하되는 것이다.

4. 협회에 바란다.

가축개량을 위하여 노력하는 협회를 볼 때 감사함을 느낀다. 다만 인력의 부족과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점지만 등록, 심사의 업무가 따로 따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즉 심사는 심사대로 등록은 등록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통합하여 업무를 추진해주면 농가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

더불어 검정자료의 생명은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농가들에게 제공되는 검정성적표와 인터넷 자료 등재가 너무 늦는 것 같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병행하여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개량교육을 강화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검정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라도 등록을 통한 혈통의 중요성 인식시켜 주시고, 지속적인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항상 앞서가고 노력하는 협회가 되었으면 한다.

●취재 : 윤현상 부장

